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7월 15일 (금)
-- (음력 6월 17일) --
Пятница
15 июля 2022г.
№ 27 (1199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2일(화) 사할린주정부 청사에서 국가두마 체육·스포츠 위원회의 회의가 열렸다.

(사진: 주정부 제공)

3만여명의 사할린 학생들 여름방학동안 다양한 캠프활동

사할린 주의 약 3만 여명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종류의 캠프 활동에 들어간다.

사할린주 예산으로 어린이 여가활동 편성 자금이 2021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배정됐다. 여름 건강 캠페인 진행의 안건은 이번주에 개최된 주정부 실무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사할린 주에는 382개의 캠프가 운영되는 가운데 4개는 도심에서 벗어나 건강회복을 위해 휴식할 수 있는 야영장소와 204개의 주간 캠프, 49개의 노동휴식 캠프, 그리고 4개의 텐트형 캠프와 121개의 전문(프로필) 캠프장이 있다.

2022년 사할린 주의 통합 예산에서 8억 2,300만 루블리 이상이 어린이 휴양 및 재할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으며, 대부분은 주 예산에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여름방학 동안 29,479명의 어린이들이 여러 종류의 캠프활동에 참여한다. 993명의 어린이들은 사할린 지역을 벗어난 러시아 내의 시외각지 보건 캠프에 보내진다. 또한 지역 내 추가적으로 27,807명의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노동 캠프에 참가하거나, 문화센터 또는 단지 내 클럽 활동을 하거나 조직에 의한 단체 배낭여행을 하기도 한다.

"2022년에는 58,000 여명의 아이들이 모든 형태의 레크레이션과 더불어 아이들의 건강 증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등으로 보호될 것이다. 이는 전체 학교 학생 수의 95%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약 1만 4천명의 학생이 이에 포함된다"고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사할린 주 교육부 장관이 언급했다.

그의 약 900명의 어린이들은 여름방학 동안 '위스토크' 스포츠센터(시외 캠프)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아르쵸프 포드쉬왈로브 주스포츠부 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캠프에는 특정 프로그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노동 및 창의적 교육이 각 입소자별로(교대)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예술, 스포츠, 음악, 기술 등을 다루는 다양한 취미 교실도 운영된다고 주 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사할린, 연방 및 극동 지역 주요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스포츠 문제 논의

이번주 초 사할린 연방 스포츠부의 올레그 마티친 장관, 국가두마의 체육·스포츠 위원회 드미트리 스비쇼브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스크바에서 여러 주요 인사들이 사할린을 찾았다. 지난 12일(화) 사할린주정부 청사에서 국가두마 체육·스포츠 위원회의 회의가 열렸다.

"사할린 주는 전러시아 대회 및 국제 스포츠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풍부하여, 사할린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 개발에서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사할린은 다른 지역들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좋은 본보기이다. 사할린 지역은 실제로 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의 수에서 기록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좋은 전망을 가지면서 팀워크에 전념하고 있는 중이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방 및 지역 차원 모두에서 입법 당국과 행정 당국 간에 매우 긴밀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안건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올레그 마티친 러시아 스포츠부 장관이 말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스포츠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사할린에는 두가지의 대규

모 스포츠 시설("육상 경기장"과 "무술 센터")이 공사중이다. 이 시설에는 훈련 겸 국가대표팀이 참여할수 있는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 사할린 선수들이 좋은 조건에서 일년 내내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게 될거라고 기대한다.

현재 "(주)가스프롬"은 워터 스포츠 센터와 5,000석 규모의 두 운동장을 갖춘 아이스아레나, 3,000석 규모의 유니버설 스포츠실 등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시설의 건설을 시작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의 시범 운영은 2024년, 2025년으로 각각 예정되어 있다.

"위원회 방문 회의에는 국내 체육 연맹 회장들과 극동 지역 여러 주의 체육부장관들, 사할린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는 사할린 지역의 많은 스포츠 시설들을 돌아보았고 훌륭한 전망을 보았다"라고 국가 두마 체육 위원회 의장인 드미트리 스비셰프가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사할린주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스포츠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23년~ 2024년에 사할린에서도 알파인 스키, 역도, 리듬체조, 수영, 복싱, 육상 등의 지역대회 및 전러시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더라는 의견이 모여졌다.

단신

동해항, 러시아 여객 수송 2년 8개월 만에 정상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단된 동해항에서의 러시아 국제 여객 수송이 2년 8개월 만에 정상화된다고 한국 매체들이 전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여객수송 방역지침이 만들어짐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국제 카페리 '이스턴 드림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까지 내외국인 승객 수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스턴 드림호는 지난달 14일부터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출국 편에 대한 여객 수송을 진행해 왔지만, 방역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입국 편 여객 수송이 제한돼왔다.

사할린 수산청, 정부 부처가 될 전망

사할린주 수산청이 주 수산부로 변경된다. 수산부로 변경될 경우 연방 당국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사할린 지역 어업 단지의 수입 창출을 지켜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사할린과 쿠릴지역 어업 종사자들의 신선한 어류 판매 지점 조식을 위해 해당 부처의 위상 및 지방 자치 단체와의 상호 작용에 기여할 것이다.

사할린주 수산업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투자 할당량 배분으로 두번째 단계 구현을 시행중인데, 이 단계에서 어류 가공 공장 건설을 위해 명태와 청어 투자 쿼터제를 법적으로 할당하려고 한다.

사할린 어업 단지는 사할린 지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이 분야에서 약 9,00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한다. 지난 3년간 수산업계 기업들이 170억 루블리 이상을 투자해 연안어류 가공단지 8곳과 연어·송어 양어장 7곳 그리고 중대형 선박 14대를 구입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선한 생선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연초 이후 230톤 이상의 신선한 어류가 판매되었는데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2.5배 이상 더 많다. 사할린주의 모든 자치체에 어획 기간 초기부터 송어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어업 기업들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수산청이 전했다.

사할린 4개 구역 숲 통행 금지

주산립수령청은 사할린 주의 4개 구역에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되어 화재 예방 특별 체제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티몹스크, 돌린스크, 스미르니흐, 오하 구역의 숲 방문과 이 곳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또한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우리 현대인

배우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한국어 강사 안복자 씨

지난 주말 하바롭스크를 다녀왔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시간을 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사할린주 스미르니흐 구역 포베지노 부락 출신인 안복자(1957년생) 씨. 본지 독자들에게 이 이름이 낯설지 않은 것은, 2019년에 본지 70주년 기념 문학콩쿠르에서 '한국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으면'이라는 안복자 씨의 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필자와는 전화로 인사를 나누는 적이 있었지만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그녀는 첫 만남에서 밝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1974년에 포베지노 부락 학교를 마치고 그는 하바롭스크로 떠났다. 당시 무국적자였기에 대학 입학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이었어서 집에서 가까운 직업학교로 입학하고 식자공(인쇄소에서 타이핑 또는 활자를 하는 사람)이란 기술직업을 익혔다. 공부를 마친 뒤 인쇄소에 입사하고 8-9년간 열심히 일했다.

그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 폴리그래픽 기술전문대학을 졸업하기도 했다. 전문 졸업장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드물었던 시기여서 한 출판사에서 안복자 씨에게 관심을 보여 스카우트 제안을 했다. 그녀는 출판사로 이직해 여러 번 새로운 도전을 한다. 잡지와 신문을 창간하고, 개인적으로는 철도대학교에 입학해 원격으로 공부를 한다. 교육의욕이 대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엔지니어전공을 4년이나 수학했는데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바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10년을 일해온 출판사도 그만두고 안복자 씨는 자신의 삶을 360도 바꾸기로 했다. 한국어교육에 폭 빠져 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 한국어에 관심이 생겨 모든 기회를 이용해 공부를 했거든요. 사할린 학교에서 공부했던 시절에는 조



선학교가 폐교되어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서 울 88올림픽 이후, 1990년대 러시아 극동에서 한국어 붐이 있었을 때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 다. 그 당시 한국 교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원어민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육과정 이 있었고, 한때 하바롭스크 조선 라디오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개월 한국어과정을 실시했 구요. 부모님이 그 당시 하바롭스크에 사셨 는데 사할린의 '레닌의 길로'(현 새고려신문) 를 받아보았어요. 당시 신문지상에 조선어교 육, 한국어교육 코너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좋 은 교육자료가 되었습니다"라고 안복자 씨는 회상했다.

1994년에 그는 하바롭스크의 동양어문 김 나지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아직 한국어가 부족하기도 했고 교사자격증이 없 어서 그는 사범대학교에 입학해 1997년에 성공 적으로 졸업했다. 전공은 윤리학과 방법론이었 다. 이렇게 자격증과 실력을 갖춘 후 학생들에 게 더 자신있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었다. 김 나지아에서 일하는 동안 수많은 학교 대표단,

선수대표단 등을 한국으로 인솔해 한민족문화, 한국 역사, 한국인들의 전통과 풍습을 많이 익 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삶에 변화가 있는 걸 좋아한다. 어쩌 면 자신의 미래가 한국어와 연관될 것으로 믿 고 행동한 것 같기도 하다. 공부를 좋아하는 그 에게는 배움이란 끝이 없었다. 1997년에 하바 롱스크에 한국교육원이 생겨 그곳에 있는 교 육 과정과, 한국어교사와 강사들을 위한 다양 한 한국어 연수에 빠짐 없이 다녔다. 그리고 교 육원 설립부터 교육원 한국어강사로도 활동을 했다. 교육원 추천으로 한국에서 개최된 러시 아 및 CIS지역 연수에도 여러 번 가보고 학생 인솔교사로서도 구미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도 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2008년에 개인 사정으로 한국어교직을 그 만두게 된 후, '코리아 투어' 여행사에서 티켓판 매직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 시기도 재미있 었단다. 한국 여행도 많이 했고, 한국어교사로 서 활동을 멈췄지만 한국어로 구사하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3년, 그에게는 삶의 위기가 닥쳤다. 예 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척추, 허리, 다리... 부상이 너무 심했다. 이후 7개월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삶에 대한 의욕이 강한 사람이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고 회고 했다. 그 일 후 지팡이 없이는 자유롭게 움직이 기 못하고, 3급 장애인으로 판정 받았다.

그의 일상은 많이 변했다. 병원에 다니고 재활 치료를 받는 시간이 많아졌다. 재활 치료 를 하면서 그는 장애인의 삶을 알게 되었고 장 애인들이 누리는 스포츠나 취미를 익히게 되었 다. 다트, 총쏘기, 체스, 수공예, 그림 그리기(회 화, 유화) 등에 빠지면서 일상을 되찾으려 했 다. 특히 처음에는 손으로 종이바구니 만드는 기술, 초콜릿 꽃다발 만드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고통을 잊으려 했다. 그는 현재도 해 마다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대회에 나가 수상하

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알게 된 장 애인들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도우려 하고 있 다. 자기보다 더 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위 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 활동 을 하고 있다.

안복자 씨는 사회적으로는 은퇴한 상태지 만 아직 할 일이 많다. 아들과 남편을 위해 집 에서 보통 3끼를 요리하고 챙겨준다. 몸 관리 도 해야 하고 마사지도 받아야 한다. 그의 본 업은 한국어 강사다. 교육원에서 학교 학생 (8세부터)들을 위한 한국어반, 그리고 고려 인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반을 맡는다. 성장 과 발전을 향하는 강사로서 매일매일 인터넷 을 검색하고 새로운 아이템, 또는 마음에 드 는 기술, 또는 모르는 지식과 자료를 발견하 고 이를 준비해 수업에 활용하려고 한다. 스 스로 배움을 놓지 않으니 제자들도 함께 성장 해 가고 있다.

낙천적인 성격의 그는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농담과 웃음 소리를 즐긴다. 손 재주가 많은 사람으로서 직접 한국 요리 마 스터클래스도 하고, 또는 수업시간에 한국어 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한민족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치 고 있다.

이렇다 보니 어느 새 그는 좋은 한국어강사 라고 평평이 나, 온라인 언어학교나 언어캠프 에서 종종 강사로 초대받기도 하고 한국어 개 인과의 선생으로도 초빙 받는 기회가 많아졌 다. 때문에 취미를 즐길 시간은 없어졌지만 사 람들에게 수준 높은 한국어 강사, 따뜻한 자원 봉사자, 한민족 문화와 역사를 전달하려고 하 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고 있다.

안복자 씨는 40년 전 마지막으로 사할린에 다녀갔다. 사할린 고향을 찾아오는 게 소원이 라는 안복자 씨. 그의 열정적이고 나누는 삶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하게 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전 러시아 올림픽의 날 행사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33회 전 러시아 올림픽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약 250명의 사람들이 이 스포츠 축제에 참여했다.

만 4세부터 만 12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대 스포츠 애호 가들을 위한 이번 행사는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관광단지 하부 승강장에서 BMX 대회가 마련되었다. 이 행사에는 유즈 노사할린스크 및 홈스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BMX 대회와 동시에 '올림픽 마일' 릴레이대회가 단지 하 부 승강장에서 시작되었다. 5명으로 구성된 11개 팀이 오르막 길을 오르며 서로 바통을 넘겼다. 팀별 참가자들은 300~350 미터의 오르막길을 주행했다.

경기중 가장 어려운 구간은 300미터 길이의 "아르메이 카" 트랙을 따라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었다. 이 대회에는 123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주 스포츠부 보도부에서 전 했다.

러시아 올림픽의 날은 1990년부터 러시아에서 기념되어 왔다. 사할린에서는 이 행사가 12번째로 열리고 있으며 항상 많은 스포츠 팬들이 모여들고 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олимпийский ден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XXXIII Всероссийский олимпийский день. В активностях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250 человек. Для любителей спорта от 4 до 12 лет и старше на нижней площадк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

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рганизовали первый BMX-конте ст сезона.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ети и подростк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Холмска.

Вместе с BMX-контестом на нижней станции комплекса стартовала эстафета "Олимпийская миля". 11 команд по пять человек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дъема передавали друг другу эстафетную палочку.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преодолевал по 300-350 метров в гору.

Самым сложным испытанием стал подъем в гору по трассе "Армейка" длиной в 300 метров. В нем при няли участие 123 спортсмен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олимпийский день празднуется в на шей стране с 1990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в 12-й раз и всегда собира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бителей спорта.

사할린, 관광 및 서비스 전문가들을 찾아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는 구인 건수가 2021년에 비해 32% 증가했다. 특히 사할린 지역에는 관광과 서비스 관련 전문가 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Headhunter.ru의 분석가는 인사 시장 상태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했다.

2022년 6월, 사할린 주에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다. 이는 작년 5월 대비 9%, 2021년 동일 기간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다. 기업 대표들은 인력 수요가 138%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건설 분야의 전문가는 116%, 생 산직 103%, 설치·서비스 분야의 전문가가 102%가 인 력 수요에 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한 상 태이다.

인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관광 및 서비스 업계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국내 인력 분야의 구인

건수는 상위 10위권에 가사도우미, 스포츠 및 피트니스, 자동 차 사업, 건설, 마케팅, 제조, 운송 및 물류, 판매 등의 분야가 포함되었다. 동시에 회계사, 교사, 공무원에 대한 공석이 초여 름에는 감소했다.

판매직은 여전히 사할린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자리 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직종은 사할린 섬 전체 일자리 수의 36% 를 차지한다. 2위로는 건설업의 젊은 전문인력, 3위는 노동직, 4위는 생산·운수 근로자, 5위는 의사와 약사다. 가장 수요가 적은 직종은 공무원과 예술 관련 분야이다.

На Сахалине ищут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туризму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у

Число предложений о работе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 лах выросло на 32% в сравнении с 2021 годом. Осо бенно остр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уждается в специали стах по туризму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у. Свежими данными о состоянии кадрового рынка поделились аналитики Headhunter.ru.

В июне 2022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ли свыше 2 тысяч вакансий. Это на 9% больше, чем в мае, и на 32%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21 года.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заявляют о возрос шей потребности в рабочем персонале — спрос вырос на 138%.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ужны на 116% чаще,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вакансий стало на 103% больше, а в сфере инсталляций и сервиса — на 102% больше.

По данным кадровых аналитиков, в два раза вырос ло число вакансий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индустрии туриз ма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В топ-10 также вошли предложе ния о работе в сферах домашнего персонала, спорта и фитнеса, автобизнес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аркетинга, производ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логистики, продаж. В то же время к лету снизилось число доступных вакансий для бухгалтеров, педагогов и госслужащих.

(8면에 계속)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무술축제 개최

지난 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3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무술축제가 개최되었다. 축제는 '오스트로브'무술센터(관장 안수학)의 주최로 사할린주협회장(박순옥)과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천영곤)의 후원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블라고웨센스크, 코르사코브, 체호브에서 온 9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이들은 태권도, 당수도, 합기도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날 개최된 태권도 시합에는 어린 꼬마들부터 청소년들까지 참가했으며 이들을 응원하는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다.

태권도를 한지 1년 밖에 안 된 미사(만 6세)와 마루사(9세)는 태권도 시합에 참여하게 된 것을 아주 좋아했고 대회 진행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다.

이미 7년이상 태권도를 하고 있는 12살 모몬 니키타와 최 아르쭈 역시 무술축제 개최에 대하여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이들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태권도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안수학 관장과 천영곤 회장은 한민족 무술의 발전과 축제 조직에 항상 아낌 없는 지원을 해준 주한인협회 측에 감사를 표명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박순옥 주한인협회장은 이날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건강과 성장, 행운을 바라며 진심으로 그들을 축하 했다.

이날 선수들은 메달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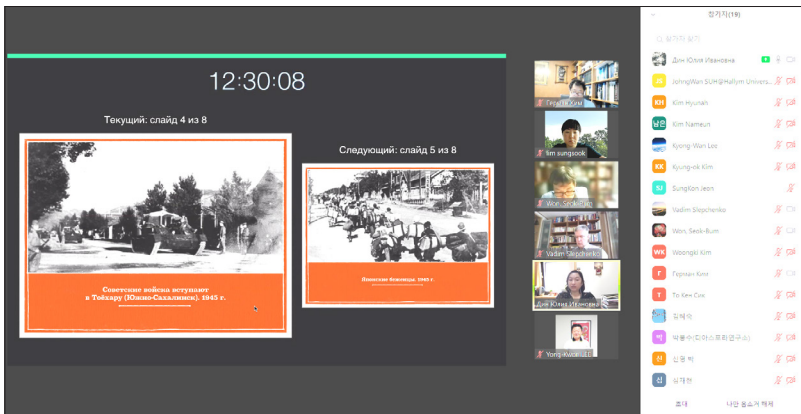
(야키모바 엘리자베타, 워로비요와 다리아 견습기자)
(사진: 주최측 제공)



사할린 연구가, 국제학술회의에 참가

2022년 7월 8일(금) 온라인으로 <2022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와 러시아연구소, 그리고 사할린 국립대학교는 최근 해마다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해 왔으며 이번에는 '유라시아 대륙 한인 디아스포라의 변영을 위한 연대를 향하여'라는 부제에 따라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연구자 10여명이 모여 사할린을 포함하는 러시아,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가 만나는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문제를 논의하고 향후 이 공간의 화해와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1부 '접경 공간과 일상의 몸부림'에서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진 울리아 박사가 일본령 가라후토에서는 복수의 민족집단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았으며 동시에 경제활동의 한계로 인해 인구 유동이 빈번했던 이유로 지역 내 유대가 약화된 측면에 대하여 논의했다. 사할린국립대학교 엘레나 이콘니코바 교수는 작가 류시옥(1920-1962)이 식민지 조선에서 겪었던 억압의 경험과 사할린으로의 강제동원, 그리고 소련시대 사할린에서 한인사회를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한 생애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 담겨진 '고향'과 귀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의미를 읽어냈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임성숙 연구교수는 사할린을 여행하는 일본인 관광객의 시선을 분석하여 제국 일본이 '폐허'가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여행이 일본의 주류 역사 인식에 도전하면서도 '과거'의 것으로서 망각하는 측면을 논의했다. 제2부에서는 디아스포라연구소 박봉수 소장이 인천시 연구구에 사는 고려인 청년들이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할린국립대학교 김영순(김 소피아) 과학담당 부총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사할린에서는 환자 대비 의사가 많은 반면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러시아연방과 극동지역과 비교하였다. 카자흐스탄국립대학 김 게르만 교수는 중앙아시아 한인 단체에서 세대교체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신세대와 구세대의 리더십에 대한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서 제3부에서는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이용권, 원석범 교수와 인천대 성원용 교수, 사할린국립대 도견식 교수가 한국과 러시아간의 경제, 기술 교류의 가능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이 유라시아지역과 동아시아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 제4부 종합토론에서는 현재 빠질 수 없는 전쟁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한-러관계를 볼 때 당분간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은 정치와 경제를 떠나서 학문적 교류를 지속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화해의 시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끝을 맺었다.

(임성숙, 한림대 연구교수)

재외동포재단, 202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등급 획득

5년 만에 '우수' 등급, 외교부 소관 재정사업 34개 중 평가점수 최고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외교부가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정 한 '20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5년 만에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집결한 평가 결과를 사업별·기관별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5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재외동포재단은 코로나19 악조건에서도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도,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에 대해서도 가점을 획득하여 외교부 소관의 재정사업 34개 중 가장 높은 102.4점의 점수를 기록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금번 성과는 전 임·직원이 사업 성과관리를 충실히 해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732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동트는 한반도를 기다리며

한 여름이다. 아날로그 세계화의 끝자락에서, 해양과 대륙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다시 시작되었다. 한반도는 한 세기 전 해양세력의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축의 회생양으로 동족간 대리 전쟁도 했다. 한반도는 나뉘었다. 그 분단이 70년을 넘었다. 약소국의 비극이다. 남한은 전쟁의 참화와 배고픔을 딛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은 산업화, 전제주의에 머물며, 적화통일을 위한 핵무장을 완성하고있다. 이렇게 한반도는 뜨거워지고 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충돌을 만들었는가?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만의 체스 게임을 접고, 가치 동맹이란 이름으로, 세력 싸움인 바둑판에서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한반도는 오싹해지고 있다.

21세기 경계를 상징하는 아날로그 세계화는 저물고 있다. 디지털 세계화는 곳곳에서 새싹을 틔우며 자라고 있다. 성별, 인종, 피부색, 이념, 빈부 등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화 '메타버스'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중심에 한반도, 한국이 있다. 한반도는 서구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백인들의 식민제국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 유색인종 국가는 식민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유색인종 국가 중 유일하게 제국주의에 편입된 일본도 그들만의 역사 문화의 생태학적 트라우마가 있다. 과거의 역사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화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데 유리 천장과 같다.

과거 백인 식민 제국주의 트라우마 없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범국가로 성장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과 신생국가들의 모범이자 모델이다. 한반도는 두 세력의 양극단에 있다. 스스로 한 세력으로 줄서기 하거나 몰입해서는 안된다. 두 세력의 완충과 중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아날로그의 시대 인류사를 넘어서, 새로운 디지털 세계화의 빛장을 더 열어야 한다. 새로운 문명의 문지기가 되어야한다.

디지털 메타버스시대 진정한 가치 동맹은 우리만의 울타리를 세우는, 우리만의 리그가 아닌, 그들도 함께 하는 인류 보편적 새로운 공존, 공영, 공생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아날로그 세계화 말미에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되고, 구조화되면서 다자 간 협력체계가 약화되고, 자국우선주의와 블록화 전환시대가 되었다. 두 세력 간 한반도의 한국은 린치 핀이다. 새 질서에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국가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이에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그 한 걸음 도약하여 대러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개방과 자유로운 무역만이 한국의 미래를 보장한다. 그 길목에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북극항로를 가진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반도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역사적 부당없이 혹독한 시베리아 추위를 이기고 개발할 인력은 한국과 북한의 노동력이다. 시베리아와 극동은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샘이다. 그중 캄차트카와 사할린은 석유, 천연가스 LNG의 보고이며, 한국과 PNG도 유망하다. 북극항로는 중국에서 부산항을 거쳐 블라디보스톡, 캄차트카 페트로파블롭스크로 이어져,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통하는 최단의 항로이다. 인류의 마지막 황금 항로이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으로 통해야 한다. 저무는 아날로그와 동트는 디지털시대의 관문이 되어야 한다. 마케도니아 헬레니즘 문명처럼,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 문명이 일고 있다. 일명 'K문화'이다. 벽을 넘어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 문화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격변의 시대 터닝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프레임에 갇힌 한국인 대다수가 아직도 구소련과 러시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웃인 러시아는 개방, 자유, 시장경제 헌법체제이다. 이것부터 윤석열 정부가 우선 바로 잡을 일이다.

이 게오르기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и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9 ию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посвящённый 30-летию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90 спортсменов,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лаговещенск, Корсаков и Чехов.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водились по трём дисциплинам: тхэквондо, тансудо и хапкидо.



Зрители бурно болели за своих ребят, в воздухе царил весёлая атмосфера. Участвовали ребята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но даже самые маленькие спортсмены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уверенно. К примеру, Миша (6 лет) и Маруся (9 лет),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тхэквондо всего год, после соревнования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замечательно, делились, что им всё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и ребята постарше, как Артём Момон (12 лет) и Че Никита (12 лет). Мальчики занимаются тхэквондо более 7 лет, а Никита планирует дальше заниматься этим спорт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Гла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 Цент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соорганизаторами -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 ханин".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грамотами и медалями.

(Елизавета Якимов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озобновит пассажирское паромное сообщение с Россией

После 2,5-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вновь начнутся регулярные рейсы паромов Eastern Dream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 портом Донхэ и Владивостоко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МИДа в столице ДФО со ссылкой на Корейскую Ассоциац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КИТА).

Востребованный у пассажиров маршрут был отменен в феврале 2020 года из-за введенных в обеих странах антиковид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Когд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эпиде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улучшилась и возобновился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въезда для россиян, были попытки вновь начать перевозку пассажиров на пароме. Однако мешало отсутствие согласованных карантинных правил и процедур в порту Донхэ.

По данным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властей порта, 8 июля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KCDC) направил официальное письмо с временными правилами карантина своим подчиненным на карантинной станции Донхэ. И теперь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опуск пассажиров из России с 18 июля.

Паром выходил из Донхэ по пятницам и возвращался по средам. Пут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занимает один день.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НА ДВУХ ЯЗЫКАХ ИЗ ТРЕХ СТРАН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встретились ученые трех стран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лли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 солидарности во имя процветания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в Евразии» (유라시아 대륙 한인 디아스포라의 번영을 위한 연대를 향하여).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япон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Халлим Со Чжон Ван (서정완), приветствуя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науч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атмосфера непоним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все еще продолжающаяся пандемия со временем исчезнут. В такой же тональности была выдержана и речь почетного професс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ллим Чхве Тхе Ган (최태강).

«Я надеюсь, — отметил профессор, — что эта конференция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более глубокого понимания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полноправной частью нашей нации, и поисков пути мир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е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о и на всем Евразийском континенте».

Сахалинская наука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докладом доктора наук То Кен Сик, а также выступлениями кандидатов наук Софи Ким и Юлии Дин.

Известный кореевед,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Герман Ким из Казах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Аль-Фараби говор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мены поколений в руководстве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Ученые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ллим обратились к гуманитарным,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ым 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аспекта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Так, Им Сон Сук (임성숙)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а примеры разных путевых дневников по Сахалину, Ли Ион Гвон (이용권) сосредоточила внимание на проблем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реи и Сахалина в области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а Вон Сок Пом (원석범) определил но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илась конференция прениями по тематике выступлений.

Результаты научной встреч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 коллективном сборнике, изданном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Е.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посетила культурная экспедици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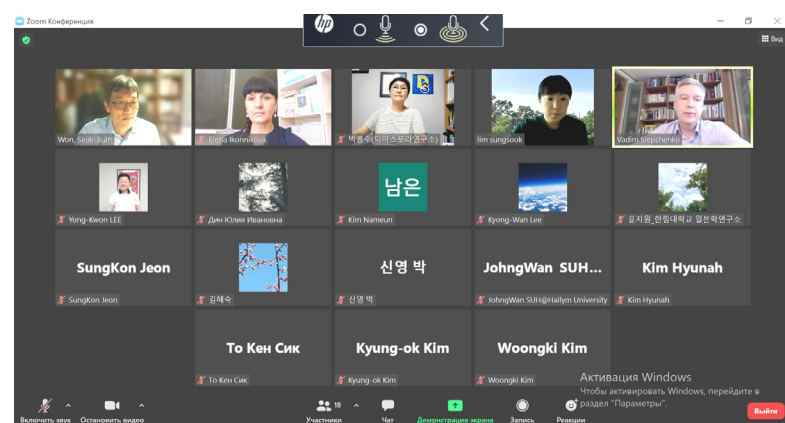
Тюмень, 13 июля — ИА РУСКОР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состоялся визит в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участников автопробег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Почет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горя Самкаева делегация в составе 31 человека посетила город Тюмень и Екатеринбург с целью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а также поддержки кандидатуры города Пусана в качестве организатора EXPO 2030.

В обширную программу визита участников автопробега входило посещение знаковых культурных мест округа: Парка дружбы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сторические экскурсии, посещение Музей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мени И.Я. Слобцова, Храма на крови. Более того, лидеры экспедиции г-н Пак Чжун Гон, г-н Ли Ион Джун, г-жа Хан Мийон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своих докладах они представили задачи настоящего автопробег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историю создания проекта. В конце рабочего дня участники с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концертом, организованным Почетным консу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горем Самкаевым по случаю приезда делегации.

После такого теплого приема на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площади у тюменского арт-объекта «Нулевой километр»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исполнили свою народную песню, в которой говорится о тихой, спокойной жизни в деревне, о любви и мире.

Автопробег «За дружбу» предполагает пройти через всю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еще 27 стран.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участники проехали уже 1 500 км. за 21 день, а впереди еще 38 000 км. Всего в пути экспедиция проведет 135 дней. Участники экспедиции — обычные люди, которые мечтали отправиться в большое путешествие. Это учителя,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студенты. Участники автопробега отметили, пока УрФО для них остается самым гостеприимным округом благодаря всесторонней поддержке Почет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горя Самкаев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принят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борьбы с COVID-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ъявило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борьбы с COVID-19. Как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страны Хан Док Су, выступая 13 июл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четвёртая доза вакцины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рекомендована всем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50-ти лет, а также лицам старше 18-ти лет, имеющим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нового подварианта вируса Омикрон BA.5 идёт гораздо быстрее, чем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жидалось. Сохранён обязательный семи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подтверждённым коронавирусом. Кроме того,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число больничных коек для пациентов средней тяжести 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в которых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амбулаторное лечение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болезнь которых протекает в лёгкой форме. В случае дальнейшего ухудшения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может быть рассмотрен вопрос об ужесточении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отметил Хан Док Су.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премию «Эмми-2022»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получил 14 номинаций телевизионной премии «Эмми-2022». Это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среди сериалов, снятых н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12 июля Американская телевизионная академия объявила список номинантов этого года.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стал первым из неанглоязычных сериалов, номинированным на премию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сериал». Актёр Ли Чжон Чжэ вошёл в число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актёра в драматическом сериале. Его коллеги Пак Хэ Су и О Ён Су поборются за приз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актёр второго плана», актриса Чон Хо Ён –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драматическая актриса второго плана». Создатель сериала Хван Дон Хёк номинирован в двух категориях - «Лучшая режиссура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сериала» и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сериала». Победители будут названы 12 сентября на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Эмми».

РК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учениях Global Sentinel

РК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мандно-штабных учениях по кос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Global Sentinel. Они пройдут с 25 июля по 3 август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смическ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США. По официальным данным, в ни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8 стран. Учен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мках совместных операций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осведомлённости о косм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ланиру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Global Sentinel, чтобы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рискам, связанным с возможными столкновениями и падениями космических аппаратов,-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два офицера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должностное лицо из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 из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астрономии и космических наук.

В РК растёт популярность отеч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Продажи билетов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инотеатрах выросли благодаря интересу к отечественным фильмам.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азвития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13 июля,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доходы кинотеатров от продаж билетов составили 158 млрд 200 млн вон (121 млн долларов). 57,5% этой суммы пришлось на фильм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х посмотрели 60,4% посетителей кинотеатров, что на 7% больше, чем в ма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Криминальный город-2» второй месяц подряд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В июне на эту картину пришлось 33,9% всех продаж.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американский «Мир юрского периода: Господство» - 18,3%, а на третьем - еще оди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Ведьма-2» - 15,8%.

В августе состоится турист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Seoul Festa 2022»

С 10 по 14 августа в Сеул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Seoul Festa 2022».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2 июля журналистам мэр города О Сэ Хун,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нет началом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туризма в Сеуле. Оно организовано совместно с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преодолевшими последствия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целях активизации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и реализации принципов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10 августа на стадионе Чамсиль пройдёт концерт известных артистов Rain и NCT Dream. 13 и 14 августа в Сеуле впервые состоятся гонки чемпионата формулы Е на автомобилях с электрическим приводом - SEOUL E-PRIX. С 10 август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масштабная акция скидок Shopping Festa, в которо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3 тысяч отелей, универмагов и других объектов. В парках вдоль берегов реки Ханган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и показы фильмов.

(RKI)

Жизнь важнее идеологи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26)

В «Могадишо» есть элементы, роднящие его с двумя голливудскими картинами о драматическом бегстве, также основанными на реальных событиях. Это «Падение Чёрного ястреба» (2001 г.), где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б усилиях по вызволению американских солдат из Могадишо после падения режима Сиада Барре, и «Арго» (2012 г.), в котором ЦРУ спасает американских дипломатов с заложниками из Тегерана во время кризиса в американо-ира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в 1979—1981 годах. Но в обоих эпизодах в спасение были вовлечены военные и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огда как в картине «Могадишо» запечатлена история о том, как дипломаты двух стран, находящиеся в ситуации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в холодной войне, без помощи государств, своими силами, объединившись бегут из города, охваченного хаосом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середине фильма есть сцена, когда сотрудники двух посольств впервые вместе ужинают. Супруг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осла не может подцепить листок маринированной периллы, и тогда жена посл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могает ей своими палочками. В этот момент теснит грудь от переполняющих эмоций,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показана солидарность, выходящая за рамки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различий. И тут же вспоминается сцена из фильма Пак Чханука «Объединённая зона безопасности» (2000 г.), когда между солдатами с Юга и с Севера завязывается дружба и они вместе едят чокопаи.

ГУМАНИЗМ ПО РЮ СЫНВАНУ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фильме есть момент, когда около 20 сотрудников посольств Юга и Севера с семьями, набившись в четыре машины, под жесточайшим обстрелом едут в сторону посольства Италии.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ключевой эпизод картины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отрясающая сцена, в которой полностью отражён гуманизм Рю Сынвана.

Обещанные мешками и книгами машины не могут развить скорость,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саспенс ощущается очень живо, поскольку создателям фильма удалось вызвать у зрителей ощущение, будто они сами едут в машине с персонажами.

— Я хотел сделать так , чтобы это было максимально реалистично, но без зрелищности. Чтобы передать

отчаяние людей, которые мчатся сквозь обрушившийся на них град пуль, было важнее создать саспенс, нежели зрелищность, — объясняет Рю. —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камеры сфокусированы на то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нутри машин, а не снаружи. Чтобы заставить зрителя слиться с персонажами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как будто они сидят с ними в машине, нужно было воспроизвести реальные окружающие звуки. Команда «звуковиков» в студии звукозаписи немало потрудились, чтобы реалистично воссоздать рёв машин и выстрелы.

Затаив дыхание, ты следишь, как четыре машины, набитые людьми, на небольшой скорости пытаются оторваться от погони повстанцев. И то, что это снято без привычных крупных планов персонажей или выходящей слезу музыки, по-настоящему впечатляет. Сцена в самолёте, когда сотрудники двух посольств прощают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тоже снята без излишнего драматизма.

— Когда мы снимали сцену в самолёте, актёры плакали. Кажется, это был эмоциональный пик, поскольку мы уже перевалили за экватор съёмочного процесса. А разве могло быть по-другому? Люди провели долгое время в состоянии крайнего напряжения, — вспоминает Рю. — Я подумал, ч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эта сцена имела мощь тог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сейчас, а не истории, закончившейся в прошлом, важнее, чтобы она оставила послевкусие, а не заставила пережить катарсис. Поскольку и так всем было понятно, какие эмоции и смысл должна была передавать та ситуация.

«Могадишо» — это не первый фильм в жанре бегства, снятый Рю. В его предыдущем фильме, «Кунхам-до» (2017 г.), есть сцена массового бегства рабочих, принуждаемых к труду в нечелове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Но если та сцена — плод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ого воображения режиссёра, то бегство в «Могадишо» основано на реальных событиях.

Стремление выжить любой ценой в самой отчаянной ситуации и то, что человеческая жизнь важнее любого режима или идеологии, — вот суть гуманистического посыла Рю, который он всё это время преследовал в своём творчестве.

Ким Сонхун, журналист «CINE21»
(Журнал Кореана, зима 2021-2022)

Новая разновидность "омикрона" вызвала в Южной Корее очередную волну COVID-19

Начавшие забывать о коронавирусе корейцы вновь столкнулись с возвращением пандемии. В стране началась очередная вспышка COVID-19, с которой будет уже сложнее справляться привычными методами.

Как сообщил сегодня утр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Центра по контролю 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заболеван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олночь 9 июля в стране за сутки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0 286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COVID-19, что почти на тысячу больше, чем днем ране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Южной Корее впервые за 45 дней превышен порог в 20 тысяч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В сочетании с другими факторами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в стране началась новая волна коронавируса, которая вызвана очередной разновидностью штамма "омикрон" - BA.5. Обычно на выходных фиксируется некоторый спад в количестве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но тут произошел наоборот рост, что позволяет предположить еще больший скачок в статистике в ближайшие рабочие дни. Кроме того, налицо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зараженны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и неделями. Еще совсем недавно число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за сутки неуклонно снижалось, достигая порой показателя в три-четыре тысячи, н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снова стал 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рост под 20 тысяч зараженных, и вот в субботу 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превышен.

Параллельно также отмечается и заметное увеличение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COVID-19 и среди тех, кто прибывает из зарубежья. В субботу число таких составило 223 человека,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середине мая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л в районе лишь около двух десятков.

Мест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еще вчера заявили, что "тенденция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изменилась в сторону увеличения" и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начале новой волны. Гла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этого явления названа новая разновидность штамма "омикрон", а также отмена ограничений, ч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заметный рост активности людей и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уб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инфекции.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прежними методами - возвращением прежних ограничений или вакцинацией - эту волну сдержать вряд ли получится. Сейчас в Корею очень жарко, наступил сезон отпусков, люди сильно устали от действовавших более двух лет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отому их сложно будет убедить вернуться к ограничениям. При этом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вакцинации. Доля тех, кто получил две прививки, составляет 87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а более 65 процентов прошли и ревакцинацию.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и четвертый препара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К)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15 тысяч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ояви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Об этом за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совместного пресс-подхода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ем Трутневым и Министром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ем Чекунковым.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за счет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парк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локализовать важнейшие сервисы для проектов «Сахахалин-1», «Сахалин-2», «Сахалин-3».

– Этот объект сегодня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так как некоторые иностранные участники выходят из проектов, на их место приходят российские и зарубежные партнеры. Сегодня у нас более 10 резидентов нефтегазового парка, и в ближайшие два-три года будут введены новые мощност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ализуется также проект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 нацелен на длительное сохранение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ее переработку.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повыш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Резиденты создадут 15 тысяч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Они появятся в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парках, а также в проектах стройиндустрии. Мы уже вышли на показатель в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Строятся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Сегодня побывали в новом корпусе 4-ой поликли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дать ее должны к 1 сентябр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лючить концессионные соглашени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ех поликлиник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и двух – в районах, а также нескольких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закладываем пять новых гостиниц для развития сферы туризма,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Министру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задали вопрос о введении преференциального режима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 мнению Алексея Чекункова, для России этот режим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льготным, самым продвинутым,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по масштабу той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ые получает бизнес.

– На сегодня портфель проектов собран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внушительный. Это десятки проектов. Большая их часть – 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Некоторые – в достаточной проработанной стадии. Например, 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на Онекотане и «Итуруп Резорт». Мы,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обеспечиваем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ддержку, в том числ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ую поддержку. Будем работать над выделением льготных кредитов по линии наших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Возможны механиз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концессии. В части развити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мечу, что две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у инвесторов отрасли – это туризм и возобновляемая энергетика. В этих отраслях первые серьезные проекты будут поддержаны, – подчеркнул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дер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помним, закон об особом режиме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дписа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числе преференций для инвесторов – освобождение на 20 лет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организаций, налога на имущество организаций, транспортного налога, земельного налога; пониженный тариф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в совокупном размере 7,6% на 20 лет; применение процедуры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Обнуление налогов на Курилах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оров в 2019 году предлаг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держало инициативу.

330 дворов уж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выполнен в 328 дворах, еще 69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до 1 август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усмотрен в 29 дворах, в двух работы уже завершены, в пяти – в финальной стадии. Ход работ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о время объезд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ервая остановка во дворе домов №10 и № 12 по проспекту Победы. Здесь выполняют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о начала августа подрядчик приведет в порядок отмостку, ступени к подъездам, обустроит тротуары, заасфальтирует проезды и озеленит территорию.

– Надо деревья подпилить, из-за пыльцы дышать некомфортно. И двор-то заасфальтируют, но и детскую площадку надо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 обрат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дома.

– Ливневку надо грамотно предусмотреть, мы обсудили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сказали, что сделают, как надо. Еще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козырьки у подъездов и отбойные карнизы, зимой наледь с крыши летит, мнет отбойники, – добавил другой житель.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обрат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просьбы жителей по деталям в ремонте двора. Это же касается и подъездов.

– Большинство дворов уже сделан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до уделять тому, чтобы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были довольны. Потому что не везде по проекту получа-

ется угодить всем, но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слушаться стоит. На сегодня сделано больше, чем на этот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ыделены большие ресурсы, и мы будем жестко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чтобы эти деньги тратились эффективно, на благо жителей.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в этом году уделяем и подъездам. Мы сегодня зашли в несколько. В принципе там чисто, но есть места, где нужен частичный ремонт. Это надо сделать, поскольку это и есть забота и уважение к людя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Безусловно, люди очень трепетно относятся к своему двору, потому чт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нашей жизни связана с двором. Мы как руководители, и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и я, когда приходим, видим, если работа тщательно н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с жителями на стадии обсуждения проекта, это сразу чувствуется. Я на днях был во дворах на улице Украинской, там пришлось вмешаться и менять проект, поскольку явно мнение жителей не было учтено. Такого быть не должно,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Такж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и мэр посетили двор дома по бульвару Анкудинова. В этом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овели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Здесь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точечного ремонта в подъездах.

– Немного надо подкрасить стены. А так претензий у нас особо нет. Уборщицы поддерживают чистоту в подъездах исправно и регулярно,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всегда на связи и устраивает нас,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дома.

Отметим, что с последними поправками в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феры ЖКХ в регионе увеличили более чем на 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позволят охватить капитальным и текущим ремонтом больше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домов.

На Сахалине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господдержки удалось увелич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более чем в 3 раза

Усилия, приложенные островными властями и бизнесом за время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позволили увеличить уровень производства мяса до 16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Вопросы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суждались 6 июля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ри полномочн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в Хабаровск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обозначил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этой работы.

– Разворот всех логистических цепочек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ивёл к существенному дефициту провозных мощностей. Мы об этом вчера говор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Секретар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требует, чтобы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производилось на месте, потому что сегодня провозные мощности, к сожалению, существенно отстают от потребностей. Надо 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люди получали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своевременно свежие и с минимальной наценкой. Уровень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в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ка невысок: овощами – 38, мясом – 32, молоком – 54 процента. Это всё довольно низкие показатели. Нам надо вместе поработать над развитие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ряде регионов такой опыт есть. Давайте сегодня рассмотрим его, им поделимся, посмотрим, как нам быстрее двигаться вперёд,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этому мы уделяе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казываем поддержку предприятиям этих отраслей. У нас реализуются крупные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и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молока и мяса. И сегодня мы на 95 процентов обеспечиваем себя картофелем и на 91,9 процента яйцом, на две трети молоком и молоч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а также овощами. А, например, по огурцам закрываем потребность на 100 процентов, по томатам – на 90. Всеми видами мяса обеспечиваем область на 22,3 процента. Рыбой и рыбопродукцией – полностью. То есть мы имеем прочные позиции п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должим их дальнейшее укрепление – в полн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дачам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поставил Юрий Трутнев,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ложительной динамикой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трасли на островах способствует реализация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К примеру, в регионе работает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ООО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в котор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одержится 1,9 тысяч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я позволяют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до 120 тонн молока в сутки. Мощности свиновод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АО «Мерси Агро Сахалин» позволяют производить до 62 тысяч голов в год. Порядка 4 тысячи тонн мяса птицы выпускает АО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Также на Сахалине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тся тепличные комплексы.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выращивают круп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 АО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ООО «Невельский АгроСнаб» и АО «Красногорская заимка», при этом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овощных культур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не толь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овощами регион сохраняет лидирующую позицию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бщий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овощей превышает 31 тысячу тонн в год.

Повышать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оциально важными товарами позволяют 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Всего их более 40.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позволила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увеличить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в 3,4 раза, молока – вдвое, яйца – на 28,3 процента. Важно, что такая помощь позволяет повысить не только уровен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и создает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смежных отраслей – например, склад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ынков и ярмарок, где жители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продукты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прямую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торговой наценки.

Гостиничный фонд Сахалина увеличится на сто комфортабельных номер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ознакомился с реализацией проекта резидента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стиничных комплексов, рестора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фуд-холла, кафе. Среди них – введенный в начале июня 2022 год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корпус к гостинице «Mega Палас» (Mega Palace Hotel).

«Mega Палас Центр» – это десятиэтажный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бизнес-центр с офисами и переговорными комнатами. Между бизнес-центром и четырёхзвездочной гостиницей обустроили мостовой переход. В новое здание перемести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отдел. Это позволило увеличить гостиничный фонд отеля в два раз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ста размещения – 100 комфортабельных номеров различной категории.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н компанией «Грин Солюшн». Инвестор вложил в проект 800 млн рублей.

«Начали стро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корпус в 2020 году. Общая площадь здания – более 37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Это 11 этажей. Большая часть офисных помещений уже сдана в аренду»,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менеджер холдинга «Mega Палас» Алексей Чун.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гостин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Mega Палас» Юлия Ана, проект был завершён в срок, несмотря на возникшие из-за введённых санкций сложности с логистикой. «Построено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здание. Рекуперация воздуха,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е, блочные системы отопления, и к тому же ещё будет газовая котельная,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сбой с теплообеспечением», – сказал он.

Юрий Трутнев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есть ли у компаний интерес стать арендаторами нового здания.

«Заключены контракты на почти все помещения. Тех, что свободны, –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Арендаторы заселятся до конца месяца. Идея построить новый центр была связана с тем, чтобы освободить здание гостиницы «Mega Палас» от офисных помещений. И теперь офисы компаний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здесь. А мы сможем сдавать больше номеров туристам. Как только офисы переместятся в новое здание, мы начнём ремонт номеров», – пояснил Юрий Ана.

«Появл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та гостиничных номеров – важно для Сахалина. Сейчас число туристов растёт, и мы видим дефицит площадей. Несколько гостиниц инвесторы начинают строить в этом году. Это четыре гостиниц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ещё одна на Курилах», – поясн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завершение встречи Юрий Трутнев отметил, что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нужны гостиницы, обеспечивающие комфор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туристов, а также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нужно уделить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города и развитию туристических сервисов.

Напомним, вице-премьер отметил, что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конкуренцию Красной поляне, если будет интенсивно развиватьс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сервисы.

Отметим, на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9 резидентов, которым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й с КРДВ инвесторы вкладывают в реализуемые проекты 23,4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ют 1,8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Фактически вложено 8,6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но 882 рабочих места. Полностью реализовано 7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Резиденты ввели в работу ресторанный комплекс на вершине горы Болевик,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центр, гостиницы, торгов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й центр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деловое здание.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оздана в курортной мест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от 17 марта 2016 года. Среди преимуществ ТОР отмечается выг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на пересечении морских и воздушных внутренн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утей,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природные ландшафты для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세계한인무역협회,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과 함께 '정책세미나' 공동 개최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재외동포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논의
"재외동포청 설치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 기대"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장영식, 이하 월드옥타)와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은 8일(금)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행사는 '경제위기 극복의 길 & 재외동포청 설치 제언'이라는 주제로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운영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전 국무총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정책위원)가 발표를 맡았고,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회원 및 월드옥타 회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유튜브 채널 '이원욱 TV' 동시 생중계)

양 기관은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장기화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일원화된 해외 사업 지원 창구 마련으로 세계 각국 재외동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이날 참석한 장영식 회장은 "직면한 시대적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촉구하며, "재외동포청 설치로 체계적인 업무 전달과 네트워크 활성화가 이루어져, 우리 회원들이 모국의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원욱 대표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빛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한인경제인을 전담



하는 총괄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앞으로도 팬데믹 등으로 무너진 무역체제 재건과 수출입 불균형 심화의 대응안을 모색하며, 전 세계 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지난 1981년 모국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한 모국경제에 기여를 핵심가치로 재외동포무역인들이 창립한 단체이다. 협회는 창립 이래 모국상품구매운동, 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차세대무역인양성, 모국청년해외취업을 비롯한 모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66개국 140개 도시에 지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7,000여 명의 CEO와 26,000여 명의 차세대경제인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제공)

세언협의 제3대 회장에 김명곤 대표 당선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이자 동포 언론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세언협)은 6월 29일 오후 2시(한국시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프린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전용창 회장의 의장 개회 선언에 이어 성원 보고가 있었다. 전 회장은 정관 3장 15조 1항에 의거, 회원의 1/3 이상 참석으로 적법하게 성원 되었음을 개회를 선언했다.

식순에 의해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이 진행됐고, 사업보고, 회계 감사 보고, 질의 응답에 이어 정관 확인 및 회장 선거가 이어졌다.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에 이

어 질의 응답이 이어졌고, 후보자 마무리 발언에 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투표가 진행됐다.

제 3대 회장선거에서 미국 플로리다의 김명곤 코리아위클리 대표와 델러스의 경윤주 코리아타임즈미디어 대표가 경합을 펼친 끝에 김명곤 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39명의 정회원 유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여분간 차분하게 진행된 투표 결과, 김명곤 후보 24표, 경윤주 후보 15표로 김명곤 후보가 회장에 당선됐다. (온라인 투표 : 김 14표, 경 11표, 현장 투표 : 김 10표, 경 4표)

7월 1일부터 2년 여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신임 회장은 당

선 인사에서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생존의 갈림길에 선 동포언론이 많다"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협회와 회원간 소통을 늘리고 언론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거주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가교 역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회장선거에 이어 신임 이사로는 추천인 선거로 김종민, 안치복, 이미진, 경윤주 4명의 회원이 선출되었고, 신임감사로는 이덕일(정) 박창진(부) 회원이 선출됐다.

한편, 신임 김명곤 회장은 당선 다음날인 30일, 선거에 함께한 경윤주 대표를 만나 수석 부



세언협 제3대 회장에 당선된 김명곤 코리아위클리 대표 (사진 : 연합뉴스)

회장으로 위촉하고, 조만간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세언협의 새로운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서울)=세언협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소수자들이 겪은 상처 어루만지기 '공감대화' 출간

'다문화'라는 말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른다.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는 그 사회의 역동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말이 때론 상처와 동의어가 되기도 한다. 초등학생 유진이의 경우가 그랬다. 유진이는 학교에만 가면 '다문화'라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나는 학교에만 오면 애들이 다문화라고 놀렸어.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중략). 싸울 때는 내 약점을 아니까 애들이 질 것 같으면 다문화라고 해. 5학년 때는

자주 울었어."

최근 출간된 '공감대화'(푸른숲)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 탈북민, 고려인 청소년, 이주여성, 사할린 교포, 중국 교포 등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정병호 한양대 명예교수, 교육학자 김기영, 문화인류학자 조일동 등 8명의 연구자가 지난 10년간 약 50차례에 걸쳐 다양한 소수자들이 참여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고, 책은 그들이 나눈 대화를 수록했다.

저자들은 참가자들의 대화를 '공감대화'라고 이름 지었다. 저자들에 따르면 공감대화는 "평등한



조건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집단 대화 프로그램"이다. 토론과 비판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경청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책은 한국 사회에 사는 소수자들의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는 한편, 대화 참여자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담담한 필치로 그린다.

저자들은 '공감대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계를 넘어 '존중과 화합'으로 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연합뉴스)

[우리말로 깨닫다]

내다 지르다 치다 하다

오늘 글 제목에 나온 단어들은 모두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소리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기에 의사소통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 통할 때, 서로 감정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말이 아니라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잔소리나 헛소리가 모두 소리를 소통의 관점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리는 말 이전에 우리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휘파람소리, 노랫소리는 모두 맑은 느낌이고 시원한 느낌입니다. 묵은 감정의 때를 씻어가는 소리입니다. 소리에는 이렇게 느낌이 담겨있어서 감정을 표현할 때는 말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무언가에 막혀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것은 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담아두고 살기에 몸은 답답해집니다. 달리 말하자면 감정이 몸 밖으로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먼지처럼 켜켜이 쌓입니다. 그 먼지가 핏줄을 돌면서 스트레스가 됩니다. 억눌린 감정을 푸는 방법은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대중 가수의 공연장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소리 질러!'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은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청중의 막힌 감정을 뚫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연을 보고 오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는 모두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원을 했는데 내 가슴이 오히려 시원해집니다. 소리 없는 응원이었다면 아마 더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막힌 가슴을 푸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다른 사람을 향해 나쁜 감정으로 지르는 경우입니다. 응원이나 호응이 아니라 분노나 질책인 경우에 소리는 악을 쓰는 겁니다. 소리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순간입니다. 이 경우 소리는 남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소리 중에는 뜻밖에 기쁜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소리는 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판소리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소리꾼'이라고도 합니다. 소리를 한 자락 했다고도 합니다. 소리를 한다는 말이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소리를 하면서,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막힌 감정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민요를 배우고 부르면서, 쌓인 감정이 터져 나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리를 하였는데 감정이 맑아진 겁니다. 내 감정이 민요를 타고 흘러나와 눈물이 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못해서 민요를 잘 못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야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리를 질러본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아예 잊어버린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민요를 배웁니다. 그리고 민요를 배울 때 가능한 한 큰소리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듣는 유일한 칭찬은 목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민요의 앞날에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의도적으로라도 소리를 질러 보면 좋겠습니다. 바닷가를 걷거나, 파도소리 앞에서, 바람 부는 언덕에서 소리를 쳐 봅니다. 이왕이면 기분 좋은 소리를 질러 봅니다. '야, 좋다!', '힘내자!' 소리를 한바탕 지르고 나면 한 뼉 더 커진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소리의 힘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 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амым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аются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даж — им предлагают 36%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вакансий на островах.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строители и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на третьем — рабочий персонал, на четвертом сотрудники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транспорта, на пятом — врачи и фармацевты. Самые невостребованные соискатели — сотрудники госслужбы и искусства.

사할린, 신생아들을 위한 선물 산모들이 직접 선택

사할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선물 제공 정책을 재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할린 사회 보호부는 산모들에게 그들을 위한 적절한 선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설문 조사를 시작했다.

사회보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할린 주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지원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 지원책은 산모와 아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사할린 산모들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본인 및 아기들을 위한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선물 세트를 최대한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사할린 주 사회보호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설문조사에는 모든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다. 부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의 선물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휴대폰 이용시 모바일 버전에 맞는 링크로 가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Сахалинским мамам предложил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брать подарок новорожденным

На Сахалине решили возобновить практику вручения подарков для мам и их новорожденных. В связи с этим островное минсоцзащиты запустило опрос, где предложило жителя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брать, каким именно будет презент.

По данным ведомства, подобна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действовала в регионе в период с 2019 по 2020 год. Такая практика благоприятно влияла на маму и малыша, в связи с чем ее решили возобновить.

«Сахалинским мамочкам в роддомах будут вручать подарок для них и их малыш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бор был максимально полезным, мы предлагаем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просе: какие предмет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ы бы хотели видеть в наборе?», — написала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е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Выбрать наилучший вариант подарка, сидя за компьютером, можно через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ведомства. Если же под рукой сотовый телефон, то можно перейти по ссылке, которая адаптирована под мобильную версию.

"고르니 워즈두흐", 케이블카 운행 여름 시간표 발표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관광단지는 평일에도 영업을 하며, 주말에는 영업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7월 7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4시부터 21시까지 스포츠 관광단지가 문을 연다. 모든 탑승 희망자들을 위해 "서쪽 하향" 및 "서쪽 상향" 케이블카가 운행된다.

주말 영업 시간도 변경되었고 "고르니 워즈두흐" 측에서 전했다:

- 케이블카 "서쪽 하향", "서쪽 상향", 10:00부터 23:00까지.
- 케이블카 "남쪽" 11:00부터 19:00까지.
- 케이블카 "빨강" 11:00 부터 18:00까지.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ообщает о работе канатки в летнее врем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крыт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в будние дни, а также продлевает режим работы в выходные.

С 7 июля комплекс открыт по средам, четвергам и пятницам с 14:00 до 21:00.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открыты канатные дороги "Запад низ" и "Запад верх".

Также изменен график работы на выходных, сообщает "Горный воздух":

- Канатные дороги "Запад низ", "Запад верх": с 10:00 до 23:00.
-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Юг": с 11:00 до 19:00.
-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Красная": с 11:00 до 18:00.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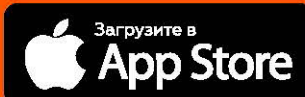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